

육계산업을 국내 축산업의 중심으로



▲ 최길영 연합회장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수원 소재 수원축협 회의실에서는 100여명의 육계인 및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육계지부연합회 창립식 및 총회가 개최되었다. 오랜 기간동안 연합회 구성을 갈망하던 경기도 지부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결성함에 따라 경기도 지역내 축산지원책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본회 장재성 육계분과위원장을 비롯, 조총회 경기도 축산과장, 최상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이영재 한국양계조합장, 박태원 충남육계지부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육계업의 중심지

경기도내에는 972명의 육계인들이 육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간 약 2억수 정도의 육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경기도내 양계협회 지부는 가평, 고양, 김포, 안성, 양평, 여주, 이천, 파주, 포천, 화성으로 10개 지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 밖에 연천, 평택, 남양주, 용인 지역에서도 협회 지부설립을 추진하는 등 이번 연합회 결성으로 한껏 단합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길영(화성) 준비위원장이 회장으로, 부회장에 김동재(이천), 임춘경(파주) 사장이, 감사에는 이화동(양평), 남상길(고양) 사장이, 사무국장에는 서종원(여주) 사장이, 재정담당에는 김동호(화성 총무) 사장이 각각 선출되면서 앞으로 양계인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

당하게 되었다.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현재 화성지부장을 맡고 있는 최길영 연합회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육계인들도 변화해야한다”며 “경기도육계지부연합회가 시대변화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 극복해 나가자”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 농림수산위원회 의원, 경기도 농정국, 경인지역 축협 조합장, 양계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연합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 같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또한, 최길영 회장은 경기도내 20개 시군지부 중 정회원으로 가입한 지부는 10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율을 80% 이상 높이는 것을 금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로의 지부가입을 적극 독려하면서 양계인들의 목소리를 한곳에 집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육계인의 위상을 높이자

경기육계지부연합회는 창립에 즈음하여 생산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육계산업을 발전시키기



▲ 육계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조충희 경기도 축산과장

위해서 질병 사전 차단, 수입 닭고기 저지 등을 결의하고 경기도 육계산업이 우리나라 축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단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육계의무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하고, 계열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충희 경기도 축산과장도 그동안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대화채널이 없어 미진했던 일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연합회를 통해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육계지부연합회 결성을 통해 육계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육계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 경기도 육계지부 연합회 창립을 축하하며(좌부터 장재성 육계분과위원장, 이영재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최길영 회장, 조충희 경기도 축산과장, 최상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